



‘2024 광주광역시장배 전국파크골프대회’ 본선에 진출한 600여명의 참가자들이 23일 광주 광산구 서봉 파크골프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멋진 경기와 친목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화보=김양배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이금용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장, 이용범 광주시파크골프협회 회장과 이승운 수석부회장, 박성원 전남일보 편집국장 등이 23일 광주 광산구 서봉 파크골프장에서 열린 본선경기 개막식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들이 경기를 펼치고 있다.



2024 광주광역시장배 전국파크골프대회 본선경기 심판들이 23일 광주 광산구 서봉 파크골프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공정한 경기 진행을 다짐하고 있다.



본선에 진출한 한 참가자가 경기를 펼치고 있다.



본선에 진출한 한 여성 참가자가 23일 광주 광산구 서봉 파크골프장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다.